

일본 마냥혼인담(馬娘婚姻譚)의 양상 및 특징

송 영 숙*

(e-mail : venussys@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말과 인간의 이류혼인 | 3. 일본 마냥혼인담의 양상 |
| 2. 일본 마냥혼인담과 오시라사마(オシラサマ) 신앙 | 4. 일본 마냥혼인담의 특징 |

キーワード : 마냥혼인담(a marriage tales about horse and girl), 이류혼인담(a heterogeneous marriage tales), 말(a horse), 아가씨(a girl), 누에의 기원(the birth of silkworm)

1. 말과 인간의 이류혼인

마냥혼인담(馬娘婚姻譚)이란 인간 여자와 동물인 말이 혼인관계를 맺는 이야기로, 일본 설화에는 주로 도호쿠(東北) 지방을 중심으로 폭넓게 전해진다. 곤노 엔스케(今野円輔)는 『도노 모노가타리(遠野物語)』(私家版, 1910年)에 실려 있는 119화의 이야기 중에서 말과 아가씨가 혼인하는 내용에 주목하여 마냥혼인담으로 명명한바 있다.¹⁾

마냥혼인담은 여자와 말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점에서 이류혼인담(異類婚姻譚)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류혼인담이란 인간과 인간 이외의 대상, 즉 이류와의 혼인 내지는 이와 유사한 성적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통칭하는 것이다.²⁾ 그 이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동물이며, 동물은 일찍이 고대 신화의

*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강사, 일본문화학 전공.

1)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 今野円輔 著(1966), 『馬娘婚姻譚 -いわゆる「オシラサマ」信仰について-』, 岩崎書店. pp.1-7.

시대부터 신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매개체로써 인간과 상징적인 성적교섭을 맺어왔다.

일본의 이류혼인담은 세키 게이고(関敬吾)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가 펴낸 일본의 대표적 민담집인 『일본민담대성(日本昔話大成)』(전12권)에는 민담을 크게 동물민담(動物昔話), 본격민담(本格昔話), 소화(笑話)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이류혼인담은 본격민담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된 <혼인·이류 사위(婚姻·異類贅)>, <혼인·이류 아내(婚姻·異類女房)>, <혼인·난제 사위(婚姻·難題贅)>에 속한다. 또한 본고에서 주목하는 마냥혼인담은 <혼인·이류 사위>의 하위유형 중의 하나인 <누에신과 말(蚕神と馬)>(AT433B)의 유형에 속하는 이야기이다.³⁾ 일본 이류혼인담의 유형을 구분할 때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이류의 젠더이다. 이를테면 인간과 동물의 혼인 및 성적교섭에 관한 유형의 틀을 나누는 기준은 인간인 여자와 이류 사위가 한 축을 이루고, 인간인 남자와 이류 아내의 교섭으로 크게 구분된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이류혼인의 모티브도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신화 속의 동물은 인간에게 신성혼(神聖婚)의 대상이 되었고, 민담에서는 인간이 베푼 선의에 응답하는 보은(報恩) 차원의 혼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경제적 교환의 성격을 띠고 상호 시혜적인 혼인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리고 본고의 마냥혼인담의 유형과 같이 이류혼인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지역 및 민족의 특수성이 반영된 민속신앙과 결부되어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이류혼인담은 설화 속에 등장하는 인간과 동물의 공생 형태 중에서 친연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화 연구자들에게 이류혼인담은 인간과 자연을 대표하는 동물과의 다양한 공생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는 현재형의 연구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과 이류의 혼인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이류인 동물이 먼저 사람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마냥혼인담은 이와는 다르게 이류인 말이 사람으로 변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여자와 직접적인 혼인관계를 맺는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정리하면 마냥혼인담은 이류혼인담의 일종으로 인간계와 이류계와의 교섭을 상징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과의 공생관계를 살펴본다는 것에 의

2) 이류혼인담의 정의와 유형 및 범주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稲田浩二 他編(1977), 『日本昔話事典』, 弘文堂, pp.80-81.

3) 이류혼인담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関敬吾(1987), 『日本昔話大成 12』, 角川書店, pp.141-147.

의가 있다. 특히 마냥혼인담은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동물 중의 하나인 말과의 공생에 대한 일단면과 그 중에서도 인간과의 혼인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전승집단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윤리적 가치관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냥혼인담은 <누에신과 말>의 하위 유형에 속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유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아가씨와 말의 성적 교섭뿐만이 아니라, 누에신과 말과도 특별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누에신과 말, 인간 여자의 관계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오시라사마(オシラサマ) 신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오시라사마 신앙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맹인 무녀인 이타코(イタコ)가 영창하는 오시라사마 제문에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마냥혼인담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일본 설화 속에 등장하는 마냥혼인담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그 양상과 특징을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마냥혼인담의 원형으로 알려진 중국 『수신기(搜神記)』의 <말의 사랑(馬の恋)>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 마냥혼인담의 특징을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2. 일본 마냥혼인담과 오시라사마(オシラサマ) 신앙

오시라사마 신앙은 도호쿠 지방에서 대대로 전해져 온 민간신앙으로 오시라사마를 신으로 기원하는 것이다. 오시라는 특히 누에의 이미고토바(忌み詞)이므로 좁은 의미로는 양잠가에서 누에 신을 모시는 신앙을 의미한다. 오시라사마의 명칭은 お白様、オシラ様、オシラサマ라고도 하며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후쿠시마 현(福島県)에서는 오신메사마(オシンメ様), 오신메이사마(オシンメイ様), 야마카타 현(山形県)에서는 오코나이사마(オコナイ様) 등으로 칭해지며 이외에 오시라가미(オシラガミ), 오시라호토케(オシラホトケ)라고도 한다.⁴⁾ 오시라사마는 오늘날까지 일반적으로 양잠(養蠶)의 신, 농업의 신, 말의 신(馬神)으로 일컬어지는 가택신의 성격을 띠는 특성이 있다.

오시라사마 신앙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현존하는 오시라사마 중에서 가장 오랜 된 것은 16세기 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시라사마의 신앙은 대부분 마을의 유서 깊은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며, 신체(神体)는 2체 1조로 약 1척(약

4) 오시라사마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柳田国男(1910), 『遠野物語』, 聚精堂, p.14. 柳田国男(1935), 『遠野物語拾遺』, 『遠野物語』郷土研究社, 増補版, pp.179-188.

삼십 센티미터) 내외의 뽕나무로 만들어졌다. 신체의 앞부분은 남녀나 말 등의 얼굴을 조각했으며, 매년 제일(祭日)이 되면 신체에 오센다쿠(オセンダク)라는 새로운 옷을 겹겹이 입혀서 가미다나(神棚)에 바친다. 제일은 음력 1월·3월(또는 9월) 16일으로, 이때 이타코(イタコ)라는 맹인 무녀가 신 내림을 하는 중에 오시라 제문을 영창하며 오시라사마의 신체를 전후좌우로 흔드는 오시라아소바세(オシラアソバセ)를 행한다.⁵⁾ 이때의 제문이 바로 이류혼인담인 아가씨와 명마의 사랑이야기에 관한 마냥혼인담이며, 여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오시라사마의 유래이다. 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사례 1]

옛날에 어느 곳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 아내는 없고 아리따운 딸이 있었다. 말을 한 마리 길렀는데 그 딸이 이 말을 사랑해서 밤이 되면 마구간으로 가서 함께 자곤 했다. 결국 말과 부부가 되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딸에게는 알리지 않고 말을 데리고 나가서 뽕나무 밑에 매달아서 죽였다. 그날 밤, 딸은 말이 보이지 않자 아버지에게 캐물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딸은 놀랍고 슬픔에 겨워 뽕나무 밑으로 가서 죽은 말의 목을 부여잡고 울었다.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고 도끼를 가지고 가서 말의 목을 잘랐다. 그러자 불현듯 딸이 그 말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다. 오시라사마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말을 매달아 놓은 뽕나무 가지로 신상(神像)을 만들었다. 그 신상은 세 개가 있었다.…(하략)…⁶⁾

[사례 1]은 『도노 모노가타리(遠野物語)』⁷⁾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서 제69화 <오시라사마의 유래>라는 내용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말이 부부관계가 된 것을 알고 격분하여 말을 죽여서 뽕나무 밑에 매달았는데, 딸이 그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이로 인해 오시라사마가 탄생했다는 줄거리이다.

서사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딸과 말이 부부가 됨→아버지가 말을 매달아서 죽임→딸이 말의 죽음을 슬퍼함→딸이 말을 타고 승천함→말을 묶었던 뽕나무로 오시라사마의 신상을 만들음→오시라사마의 유래로 전개된다. 결론적으로

5) 樋口 淳, 陶 雪迎(2001), 「馬娘婚姻譚の日中比較」, 専修大学人文科学研究所月報/専修大学人文科学研究所, pp.1-4.

6) 柳田国男(1995), 『遠野物語』, 河出書房新社, pp.42-43. 야나기타 구니오 저, 김용의 역(2009), 『도노 모노가타리』, 전남대학교출판부, pp.116-117.

7) 야나기타 구니오가 1910년에 발표한 이와테 현(岩手県) 도노(遠野) 지방에 전해지는 일화나 전승 등을 담은 설화집이다. 도노 지방의 쓰치브치 촌(土淵村村) 출신의 민담 수집가이던 사사키 기겐(佐々木喜善)이 도노 지방에 전해지는 전승에 대해 이야기 해준 내용을 야나기타가 기록하여 편찬하는 형태로 출판되었다. 일본 민속학의 원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작품이다. 국내 번역으로는 김용의 역(2009), 앞의 책이 있다.

딸과 딸의 이류혼인으로 인해 딸과 함께 딸이 승천하게 되어서 오시라사마의 신상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딸을 데리고 승천한 딸은 원래 하늘의 사자(使者)였다는 신화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후 둘을 본떠서 오시라사마의 신상을 만든 것은 딸까지 신격화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마냥혼인담이 일본에 정착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에도(江戸) 시대의 유학자 하야시 라잔(林羅山)이 편찬한 근대 초기의 괴담 번역 소설집인 『괴담전서(怪談全書)』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 수록된 마두낭(馬頭娘)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마냥혼인담의 기원으로 여겨지고 있다.⁸⁾ 마두낭은 간보(干宝)가 집약한 지괴소설집인 『수신기(搜神記)』의 <말의 사랑(馬の恋)>과 동일한 서사구조인데, 여기에는 양잠신의 유래담이 새롭게 부연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를테면 마두낭과 <말의 사랑>의 서사구조를 비교할 때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야기의 말미에서 양잠을 기원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여자의 상을 만들고 말가죽을 씌운 것을 마두낭이라고 하여 양잠 신앙을 기원하는 자들의 신상(神像)이 되었다는 부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마두낭에는 <말의 사랑>에서 언급되지 않은 양잠 신앙의 신상이 새롭게 구연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회자되면서 예로부터 특히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도호쿠 지방에서 뽕나무로 말과 딸을 한 쌍의 오시라사마 신상으로 만들어서 모셨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⁹⁾

하지만 하야시 라잔의 마두낭에 대한 평판과 도호쿠의 이타코의 제문, 그리고 민담이 연계되는 경로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아버지가 말가죽을 벗긴다는 내용으로 볼 때 마냥혼인담의 전파에는 피혁 제조에 관련이 있던 피차별민의 개입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 수험(修驗)¹⁰⁾이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무녀를 매개로 하여 마냥혼인담이 오시라사마 신앙 속에 정착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시각으로 양잠 신앙 탄생 배경에는 산신 신앙과 양잠 작업, 나아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말의 비중에 대한 민간 신앙 등이 혼재되어 원초적인 다양

8) 今野円輔 著(1966), 앞의 책, pp. 145-154.

9) 石井正己(2017), 「日本文学における人鬼交驛—異類婚姻譚の系譜を中心として—」, 韓国研究財団一般共同研究事業 第2次年度 第5・6次コロキウム, pp.62-66.

10) 일본의 원시적인 산악신앙과 밀교가 혼합된 것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초인적인 수행을 쌓아 영적 힘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을 한 사람을 야마부시(山伏)라고 하며, 현재도 기이(紀伊)반도의 구마노(熊野)와 도호쿠(東北) 지방의 데와산간(出羽三山)에서 실제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福田アジオ 他編(1999), 『日本民俗大辞典』, 吉川弘文館, pp.823-825.

한 성격의 신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¹¹⁾ 주목할 점은 마냥혼인담은 도호쿠의 맹인 무녀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며 확산된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녀인 이타코가 영창하는 제문에 마냥혼인담이 등장하며, 결말에서 오시라사마 신앙의 유래까지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오시라사마의 제문 그 자체가 마냥혼인담이며, 오시라사마 신앙은 불교나 외래 종교가 보급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본 민족 고유 신앙의 잔재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오시라사마 신앙과 직결된 제문에서 무녀가 신마(神馬)와 인간의 자손인 아가씨가 액난을 극복하고 둘 다 신이 된다는 마냥혼인담을 영창하는 것에서 극대화 되고 있다.

정리하면 오늘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현대인들에게 마냥혼인담과 오시라사마 신앙은 그다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도호쿠 지방의 중세적인 감각에는 양잠신의 탄생을 논하는 매우 실감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말과 아가씨가 누에로 화신(化身)하여 인간에게 행복을 초래한다는 유래담은 논농사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인 양잠, 즉 생산과 직결된 성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러한 마냥혼인담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양잠의 신·농업의 신으로, 오늘날까지 아오모리(靑森)의 오소레산(靑山)에서 이타코에 의해 계승되고 있는 오시라사마 신앙이다.

3. 일본 마냥혼인담의 양상

일본 구전설화에는 인간 여자와 말이 혼인관계를 맺는 일명 마냥혼인담의 이야기가 매우 다양하게 전해진다. 마냥혼인담은 인간과 이류와의 혼인이라는 점이 주목을 끄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마냥혼인에 의해 파생되는 결과물이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2]

옛날에 어떤 농부에게 예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매일 말을 돌보면서 마구간에서 말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말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딸의 아버지가 아무리 말렸지만 딸은 조금도 듣지 않았습니다....(중략)...어느 날 농부가 말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큰 뽕나무에 매달아 머리를 잘라버린 후에 말가족은 마당 한

11)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倉田隆延(1993), 「オシラ様伝説(馬娘婚姻譚)」 『日本「神話・伝説」総覧』 吉成勇編, 新人物往来社<歴史読本特別増刊 事典シリーズ>, pp.314-315.

구석에서 말렸습니다. 말이 죽은 것을 안 딸은 거의 미친 듯이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중략)…말이 죽고 나서 칠일 째 되는 날 말가죽이 슬슬 움직이며 위로 날아오르더니 갑자기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딸을 감싸고 공중으로 날아갔는데 그대로 어디로 날아갔는지 사라져버렸습니다.…(중략)…농부의 꿈에 어느 날 딸이 나타나서,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지만 내년 봄에 말 모양 얼굴의 벌레가 나타나면 저라고 생각하시고 뽕나무 잎을 먹여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중략)…시간이 흐르고 다시 봄이 되자 농부가 말을 죽여서 매달아 놓았던 뽕나무에도 부드럽고 큰 녹색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 한 구석에 말 모양의 얼굴을 한 벌레가 바구니에 가득 담겨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벌레들에게 뽕나무 잎을 주었고, 그 벌레들은 어느덧 자라서 입에서 흰 실 같은 것을 뽑아냈습니다. 이것이 누에고치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에의 등에는 아직도 말의 찌그러진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¹²⁾(밑줄은 필자)

[사례 2]는 『일본 민담(日本の民話)』에 전하는 이야기이다. 농부의 딸이 매일 말을 돌보며 친하게 지내다가 말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으나, 이를 알게 된 농부가 몹시 노여워하여 말을 죽이고 뽕나무에 매달아 놓는다. 딸과 말의 사랑은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누에고치가 탄생한다는 서사구조이다. 이야기를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농부와 외동딸이 살고 있었다.
- ② 외동딸이 말을 돌보며 친하게 지내다가 부부가 되었다.
- ③ 화가 난 농부는 말을 뽕나무에 매달아 죽인 후에 말가죽은 말렸다.
- ④ 말이 죽은 것을 안 딸은 병이 들었다.
- ⑤ 칠일 째 되는 날 갑자기 말가죽이 날아와 딸을 감싸고 승천했다.
- ⑥ 농부의 꿈에 딸이 나타나 말 모양의 벌레에게 뽕나무 잎을 먹이라고 말했다.
- ⑦ 벌레들이 자라서 입에서 흰 실 같은 것을 뽑아냈으며, 이것이 누에고치의 기원이라고 한다.

[사례 2]는 마냥혼인담의 일반적인 서사전개로, 농부의 딸이 말에게 각별한 애정을 느끼며 이류혼인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알게 된 농부가 격노하여 말 머리를 자르자 이에 딸이 슬퍼하며 방에 틀어박히는데, 마지막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던 말가죽이 갑자기 날아와서 딸을 감싸고 승천하는 것으로

12) 高橋在久 外 1人(1974), 『日本の民話 6, 房総・神奈川 篇』, 未来社, pp.335-337. 이하 본고에서 따로 출전을 제시하지 않은 인용 사례는 필자의 줄여임을 밝혀둔다.

이야기의 반전을 맞이한다.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에 마냥혼인담과 관련하여 반드시 새로운 누에의 기원이 언급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류혼인인 마냥혼인으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물이 새로운 누에의 탄생¹³⁾이라는 사실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어서 [사례 2]와 동일한 맥락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제시하기로 한다.

[사례 3]

옛날에 명망이 높은 왕에게 털이 매우 윤기가 나는 진귀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공주가 그 말을 좋아해서 마구간에 말을 보러 갔는데, 명마가 공주를 보고 반하고 말았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말은 공주가 자신을 보러 올 때만 여물을 먹었습니다. …(중략)…말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말이 죽을 것을 염려하여 공주에게 와줄 것을 부탁했지만 공주는 싫다며 달아났습니다. …(중략)…마침내 말이 매일 여물을 먹지 않자 왕도 말이 공주가 있을 때만 먹는다는 것을 느끼고 공주에게 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공주를 불러서 “어째서 너는 인간인데 축생이 너에게 반하게 할 수 있느냐”며 격노하여 공주를 산채로 땅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중략)…하지만 공주는 몇 번이고 되살아났습니다. …(중략)…공주가 땅에 묻힌 사이에 말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약해졌습니다. 왕은 절대로 공주와 말이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이 아무것도 먹지 않더니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중략)…마침내 말이 죽은 것을 안 공주가 축생이지만 말 무덤 앞에서 슬피하며 향을 피우고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말가족이 횡 하고 날아오더니 공주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공주도 말가족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중략)…두 사람은 누에를 하계(下界)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누에는 왕이 있는 궁전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에에게 뽕잎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양잠이 일본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와 말은 누에가 되어 양잠의 신으로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하략)…¹⁴⁾(밑줄은 필자)

[사례 3]은 『일본석화대성(日本昔話大成)』에 채록된 <누에신과 말(蚕神と馬)>의 유형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공주와 말의 이류혼인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말과 공주가 사후에 함께 양잠신으로 모셔진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① 왕에게 털이 매우 윤기가 나는 진귀한 말이 있었다.

13) 누에의 기원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고지키(古事記)』에서 하야스사노오노미코토(速須佐之男命)에 의해 살해당한 여신인 오게쓰히메노가미(大宜津比売神)의 머리에서 누에가 생긴다는 양잠의 기원담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魯成煥 訳註(1999), 『古事記』, 예진, pp.76-77.

14) 関敬吾(1987), 『日本昔話大成 2』, 角川書店, pp.141-143.

- ② 명마가 공주를 보고 반하여 상사병에 걸렸으며, 공주가 자신을 보러 올 때만 여물을 먹었다.
- ③ 왕은 말이 공주에게 반한 것을 알고 격노하여 공주를 땅에 묻었지만 몇 번이고 되살아났다.
- ④ 왕은 공주와 말이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말이 아무것도 먹지 않더니 죽고 말았다.
- ⑤ 말이 죽은 것을 안 공주가 말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향을 피웠다.
- ⑥ 말가죽이 날아오더니 공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 ⑦ 두 사람은 누에를 하계(下界)로 떨어뜨렸으며, 하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에에게 뽕잎을 먹였다.
- ⑧ 공주와 말은 누에가 되어 양잠의 신으로 모셔지게 되었다.

[사례 3]은 [사례 2]와 비교할 때 두 가지의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는 말과 공주의 혼인관계가 실제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지 공주는 말의 뛰어난 외모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말을 보러 가기는 했지만, [사례 2]의 외동딸과는 달리 말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말은 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해 상사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후 공주를 보지 못하면 여물을 먹지 않아서 마침내 죽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안 공주가 말 무덤으로 가서 비록 말이 축생이지만 그 죽음을 슬퍼하며 향을 사르자 말가죽이 날아와 공주를 감싸고 하늘로 올라갔다.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승천했던 말과 공주가 누에로 변해서 지상으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양잠의 신으로 모셔지게 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례 3]은 양잠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말의 역할과 아가씨와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이 점을 [사례 2]와 비교하면 [사례 2]에는 외동딸과 말의 혼인관계에 의해 파생된 것이 누에고치의 기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사례 3]에는 공주와 말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공주의 승천 후에 누에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사람들이 이를 양잠의 신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례 3]에는 마냥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과 아가씨가 승천한 후에 누에가 하계로 떨어졌으며, 말과 아가씨를 양잠의 신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계속해서 양잠의 신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4]

할아버지와 할머니, 예쁜 딸이 있었다. 딸이 말과 사이좋게 지내더니 부부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말을 산에 있는 뽕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딸은 말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할아버지가 말가죽을 벗기자 그 가죽이 딸을 감싸고 천상으로 날아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3월 16일 아침, 딸이 꿈에 나타나 봉당에 있는 절구에 말 모양을 한 벌레가 있는데 뽕나무 잎을 먹이면 비단실이 나오는 것으로 생활하라는 꿈을 꾸었다. 3월 16일, 딸이 말한 대로 말 머리 모양의 벌레가 있었다. 이 벌레를 누에라고 하는데, 이 신은 오시라사마이며 말과 딸이다.¹⁵⁾

[사례 4]의 내용은 [사례 3]과 비교할 때 딸과 말이 부부의 연을 맺는 우호적인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어지는 서사구조는 말가죽이 딸을 감싸고 승천함→새롭게 누에가 생김→양잠신의 탄생 등의 공통점을 지닌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례에서 모두 양잠신이 새롭게 탄생하는데, 특히 [사례 4]에는 양잠신의 이름이 ‘오시라사마’라고 구체적으로 지칭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인에게 양잠의 신이자 가택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오시라사마의 명칭이 마침내 설화에 등장하는 것이다. 내용을 단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딸이 말과 사이좋게 지내더니 부부가 되었다.
- ②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말을 산에 있는 뽕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 ③ 말가죽을 벗기자 그 가죽이 딸을 감싸고 천상으로 날아갔다.
- ④ 딸이 할아버지 부부의 꿈에 나타나 3월 16일에 말 모양의 벌레에게 뽕나무 잎을 먹이고 비단실이 나오는 것으로 생활하라고 말했다.
- ⑤ 이 벌레를 누에라고 하는데, 이 신은 오시라사마이며 말과 딸이다.

[사례 4]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마지막 부분의 “이 벌레를 누에라고 하는데, 이 신은 오시라사마이며 말과 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누에를 오시라사마라고 하는데, 이 누에가 곧 말과 딸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누에는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간 말과 딸의 화신(化身)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오시라사마가 되었다는 것으로, 말과 딸의 승천→누에의 기원→오시라사마의 새로운 탄생 등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계속해서 오시라사마의 탄생을 언급하는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15) 関敬吾(1987), 『日本昔話大成 2』, 角川書店, p.145.

[사례 5]

말이 딸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아버지가 이를 알고 화가 나서 말을 뽕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후에 가죽을 벗겼다. 딸이 그것을 보고 울고 있었는데, 말가죽이 딸을 둘둘 말아서 하늘로 날아갔다. 할아버지 부부가 슬퍼하던 어느 날, 딸이 3월 16일 아침 꿈에 나타나 “봉당에 있는 절구를 보면 말 모양 형태를 한 벌레가 나올 것이므로 뽕잎으로 기르면 비단실을 만들어 줄 것이니 그것으로 생활하세요, 그것은 누에라는 벌레예요.”라고 알려주었다. 할아버지 부부가 꿈에서 딸이 알려준 대로 했더니 그 벌레가 고치를 만들었다. 이것이 누에의 기원이며 말과 딸은 오시라사마라고 한다.¹⁶⁾

[사례 5]와 [사례 4]의 서사구조는 말과 딸의 혼인관계 성립→말가죽이 딸을 감싸고 승천→할아버지 부부의 꿈에 딸의 출현→누에의 기원→오시라사마의 탄생 등의 공통적으로 전개된다. 이야기를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말이 딸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 ②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말을 뽕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후에 가죽을 벗겼다.
- ③ 말가죽이 딸을 둘둘 말아서 하늘로 날아갔다.
- ④ 딸이 할아버지 부부의 꿈에 나타나 3월 16일에 말 모양의 벌레에게 뽕나무 잎을 먹이면 비단실이 나오는 것으로 생활하라고 말했다.
- ⑤ 이것이 누에의 기원이며 말과 딸은 오시라사마라고 한다.

[사례 5]와 [사례 4]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공통점은 딸이 할아버지 부부의 꿈에 나타나 3월 16일 아침에 누에를 발견하면 뽕나무 잎을 먹여서 키우라고 말하는 흥미로운 대목이다. 여기서 지칭하는 3월 16일은 오시라사마의 제일(음력 1월·3월·9월 16일) 중의 한 날로, 맹인 무녀가 오시라사마 제문을 영창하며 오시라사마의 신체를 전후좌우로 흔드는 오시라아소바세(オシラアソバセ)를 행하는 날이다. 설화에서 새로운 누에의 탄생과 관련하여 특별히 3월 16일을 언급하는 것은, 민간에서 오시라아소바세를 행하는 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요컨대 [사례 5]와 [사례 4]의 공통적인 서사구조는 말가죽에 쌓여서 승천한 딸에 대한 후일담이다. 승천했던 딸이 어느 날 부모의 꿈에 나타나 절구통 안

16) 関敬吾(1987), 앞의 책, p.146.

에 있는 누에에게 뽕나무 잎을 먹이면 비단실을 생산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으며 이것이 양잠의 기원이 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설화는 특히 『기키미미조시(聽耳草紙)』에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이다.¹⁷⁾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는 비교적 말과 아가씨의 우호적인 관계를 묘사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아가씨가 말을 진심으로 대하지도 않고, 나아가 말의 구애를 축생이라고 무시하며 비난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6]

어느 나라의 왕에게 공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해 전쟁이 일어나자 왕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적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왕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니다. …(중략)…공주는 어느 날 평소처럼 말에게 여물을 주며 받은 농담으로 “우리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네가 전쟁터로 가서 우리 아버지를 등에 태워 모시고 온다면 너에게 기쁘게 시집 갈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이 기뻐하는 듯한 얼굴로 큰 소리를 내며 앞발로 땅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중략)…공주는 설마하고 생각했지만 칠일째 되는 날 신기하게도 말이 아버지를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은 어떠한 여물에도 관심이 없고 뭔가 편치 않은 듯이 마구간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중략)…공주가 마구간으로 직접 가서 말에게 여물을 주려고 하자 말이 공주를 노려보며 소매를 잡아당겨서 마구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축생이 분수를 모른다.”며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마당에서 말리며 계속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중략)…그때까지 말리고 있던 말가죽이 큰새처럼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사이에 말가죽이 순식간에 공주를 둘둘 감싸고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 갔습니다. …(중략)…그로부터 칠일 후에 궁전에서 가까운 뽕나무 밭에 하늘에서 말가죽이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공주는 없고 검고 작은 벌레가 뽕잎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벌레가 공주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벌레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뽕나무 잎을 먹여 키워더니 흰 누에고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누에고치를 삶아서 실을 뽑으니까 아름다운 비단 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에이며, 양잠신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누에고치를 가진 여신이 말을 타고 있거나, 또는 여신 옆에 말이 있는 것은 이런 연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¹⁸⁾

[사례 6]은 『일본 민담』에 채록된 이야기이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 4], [사례 5]와는 달리 말과 공주의 이류혼인이 성립되거나 상호 간의 우호적인 감정

17) 倉田隆延(1993), 앞의 책, pp.314-315.

18) 小野忠孝 外 1人(1974), 『日本の民話 8』, 上州・甲斐 篇, 未来社, pp.496-499.

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야기를 단락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① 왕에게 공주가 한 명 있었다.
- ② 공주는 키우던 말에게 받은 농담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면 시집가겠다고 말했다.
- ③ 말이 아버지를 태우고 무사히 돌아왔다.
- ④ 말은 여물에 관심이 없고 마구간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 ⑤ 아버지가 공주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축생이 분수를 모른다면 말을 창으로 찢어서 죽였다.
- ⑥ 말가죽이 순식간에 공주를 감싸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 ⑦ 칠일 후에 뽕나무 밑에 하늘에서 말가죽이 떨어졌는데, 공주는 없고 검고 작은 벌레가 뽕잎을 먹고 있었다.
- ⑧ 양잠신의 모습이 누에고치를 가진 여신이 말을 타고 있거나, 여신 옆에 말이 있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라고 한다.

[사례 6]에서 공주는 자신이 돌보던 말에게 반농담조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오면 시집가겠다고 조건을 제시하여 아버지를 전쟁터에서 무사히 데려올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공주가 말에게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무사히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에게 시집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공주는 말이 어떠한 여물도 먹지 않은 채 미친 듯이 날뛰자 자신이 했던 약속이 맘에 걸려서 말에게 여물을 주려고 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공주는 생사를 모르는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말의 충심을 이용했던 것이다. 뒤늦게 공주의 의중을 알아차린 말은 공주의 소매를 물어서 마구간으로 끌어들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에게 축생인 주제에 인간을 넘봤다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후의 서사구조는 [사례 4], [사례 5]와 동일하게 말가죽과 공주의 동반 승천→새로운 누에의 탄생→양잠신의 등장과 같이 공통적으로 전개된다. 단지 [사례 6]의 양잠신은 그 명칭이 [사례 4], [사례 5]와 같이 오시라사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새로운 명칭은 보이지 않으며, 누에고치를 가진 여신이 말을 타거나 여신 옆에 말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테면 [사례 6]에 등장하는 양잠신은 일반적인 오시라사마의 모습인 남녀의 쌍신(双神)이거나 아가씨와 말을 조각한 이체(二体)의 한 쌍이 아니라 단지 여신으로만 나타난

다. 하지만 이 여신은 반드시 말을 타고 있거나 여신 옆에 말이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말은 여신을 수호하는 신성한 사자(使者)이거나 신의 화신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요컨대 [사례 6]은 일반적인 마냥혼인담과는 달리 아가씨와 말의 이류혼인이 성립되지 않았고, 말과 아가씨의 관계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말가죽과 아가씨가 결합하여 승천한 후에 발생하는 누에의 기원과 양잠신의 탄생은 일반적인 마냥혼인담과 공통적인 서사구조이다. 흥미로운 점은 양잠신의 모습이 아직 오늘날의 오시라사마의 신상처럼 한 쌍의 신체로 결합되지 않았고, 양잠신인 여신과 말의 관계성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잠신인 여신이 반드시 말을 타고 있거나 여신 옆에 말이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오시라사마의 모습처럼 여신(아가씨)과 말이 한 쌍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정리하면 [사례 6]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양잠신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다. 누에고치를 가진 여신이 말을 타거나 여신 옆에 말이 있다는 것은 누에고치와 여신, 그리고 말과 관련이 있는 양잠신의 성격을 형상화 한 흥미로운 대목이다.

계속해서 [사례 6]과 같이 말이 아가씨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아가씨가 자신에게 시집오기를 기대했으나, 축생이라는 이유로 아가씨의 아버지에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사례 7]

전하는 옛 이야기에 의하면 까마득한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집에 다른 사람은 남겨 두지 않고 단지 자신의 딸만 남겨둔 채 먼 길을 떠난 일이 있었다고 한다.…(중략)…딸은 아버지가 그리워져 말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날 위해 아버지를 데려다 준다면 너에게 시집갈게.” 그 말을 들은 말은 고삐를 끊고 곧장 그녀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중략)…아버지는 급히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비록 축생이지만 각별한 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 기특하여 아버지는 말에게 풀을 듬뿍 주었다. 그러나 말은 풀에는 입도 대지 않고 딸아이가 들락거릴 때마다 어떤 때는 기뻐서 펄쩍 펄쩍 뛰다가 어떤 때는 또 화를 내며 씩씩거리곤 했는데, 딸은 그 사이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중략)…아버지는 딸에게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아버지는 활로 말을 쏘아죽이고 그 가죽을 트락에 늘어놓고 말렸다.…(중략)…딸이 장난삼아 말가죽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너는 축생이면서 어떻게 나를 아내로 삼겠다는 생각을 했니?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자초했는지 모르겠구나.”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말가죽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녀를 둘둘 말아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다.…(중략)…

며칠이 지나 큰 나뭇가지 사이에서 딸과 말가죽이 하나로 뭉쳐져서는 누에로 변하여 실을 토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누에가 토해내는 실은 두껍고 또 양도 많아서 일반 누에와는 달랐다. 이웃집 부인이 이 누에를 집으로 가져와 길렀는데, 정확히 예년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았다. 이에 그 누에가 있었던 나무를 ‘뽕나무’라고 명명했다. 상(桑)이란 상(喪)이다. 그 후로 백성들은 이 나무를 다투어 심었는데, 지금 민간에서 누에를 키우고 있는 것이 이 뽕나무이다. 상잠(桑蠶)이라고 하는 까닭은 지금의 누에가 이때에 살아남은 누에와 같은 종류이기 때문이다.¹⁹⁾

[사례 7]은 『수신기(搜神記)』의 <말의 사랑(馬の恋)>에 전하는 내용이다. 오늘날 일본 마냥혼인담의 원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야기로, 서사구조를 단락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① 아버지가 딸을 남겨둔 채 길을 떠난다.
- ② 딸이 기르던 말에게 농담 삼아 아버지를 데려다 준다면 시집가겠다고 말한다.
- ③ 딸이 아버지를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온다.
- ④ 아버지는 딸에게 말이 화내는 이유를 듣고 활로 말을 쏘아 죽인다.
- ⑤ 딸이 장난삼아 말리려고 걸어놓은 말가죽을 발로 차며 축생인 주체에 자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을 비난한다.
- ⑥ 말가죽이 딸을 감싸고 순식간에 사라진다.
- ⑦ 딸과 말가죽이 하나로 뭉쳐져서 누에로 변하여 실을 토하는 것이 발견된다.
- ⑧ 누에가 있었던 나무를 뽕나무라고 명명했으며, 상잠(桑蠶)이라고 하는 까닭은 지금의 누에가 이때에 살아남은 누에이기 때문이다.

[사례 7]과 [사례 6]의 서사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딸을 남겨둔 채 길을 떠남→딸이 말에게 농담조로 아버지를 찾아오면 시집가겠다고 말함→말이 아버지를 집으로 무사히 데리고 옴→말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딸에게 시위를 하듯 여물을 먹지 않음→화가 난 아버지가 말을 죽이고 가죽을 벗김→말가죽이 딸과 함께 승천함→말과 아

19) 지은이 干宝, 옮긴이 도경일(1999), 『수신기(고대중국민담의 재발견 2)』, (주)도서출판 세계사, pp.184-187.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였음. 송영숙(2011), 『일본 민담 속의 십이지 동물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81-87.

가씨의 합체 후에 누에가 생김 등으로 정리된다. 단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례 7]은 상잠이라고 하는 까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사례 6]은 양잠신인 여신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만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통점 외에 부분적인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사례 7]에서 딸은 말에게 축생인 주제에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것에 대해 발로 말가죽을 툭툭 차며 노골적으로 비난한다. 하지만 [사례 6]은 공주가 말의 구애를 거절하여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을 뿐이며, 말을 심하게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았고 이러한 역할은 오히려 아버지가 대신하고 있다. 두 사례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사례 7]은 상잠이라고 하는 까닭이 지금의 누에가 그때 살아남은 누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사례 6]은 누에의 등장과 더불어 양잠신의 모습이 누에고치를 들고 늘 말과 함께 한다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사례 6]과 [사례 7]은 누에가 탄생하기까지의 아가씨와 말의 관계를 공통적인 모티브로 한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서 [사례 6]은 양잠신의 모습이 여신이며 이 여신은 늘 말과 동행한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양잠신이 아가씨와 말의 합체이거나 한 쌍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요컨대 수신기의 <말의 사랑>을 모티브로 하지만, [사례 7]과 비교할 때 아가씨가 말을 축생이라고 비난하지 않는 태도와 양잠신인 여신이 말과 동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사례 6]은 [사례 7]의 아가씨의 행동과는 달리 자신에게 연정을 품은 말에게 축생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말의 죽음을 애도하며 향을 피우는 모습은 이류혼인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례 7]은 말과 아가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누에의 기원과 누에가 있었던 나무를 ‘뽕나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한 유래담이다. 고대 중국에서 야생 뽕나무는 일찍이 사당에서 거대하게 자랐기 때문에 사목(社木)으로 숭배되었다. 사당은 화재, 가뭄, 홍수 등을 막고 풍요로운 가을 추수를 보장받기 위해 제를 지냈던 곳이다. 이러한 사당은 양기(陽氣)를 내는 시(市)와는 달리 음기(陰氣)를 관리하기 위한 주술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사목이 많은 곳에 사당을 두었기 때문에 사당과 사목은 동일시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사당에서 기우제나 풍요, 다산을 기원하는 제의들이 열리면 가뭄이 동반되었고, 모여든 남녀들 사이에 연애와 성행위가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이러한 사당에서 집단적인 남녀의 성행위는 천지의 교감을 얻어 비를 내리게 하며, 대지가 다시 기운을 얻게 한다고 믿어졌으므로 제지되기보다는 장려되었다.²⁰⁾ 잎과 가지가 풍성한 사목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남녀의 성행위는 공감주술의 일부로 인식되었던 셈이다. 성스러운 나무 아래에서 행하는 성스러운 행위였기에 남녀의 성적 방종으로 인식되거나 통제되지는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성수(聖樹)라고 여겨졌던 뽕나무 아래에서 남녀의 성적인 결합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생각은 뽕잎을 먹고사는 누에의 번성과도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게 되었다. 요컨대 [사례 7]의 <말의 사랑>이 형성된 배경에는 뽕나무를 성수로 여긴 고대 중국인의 인식과 사목 아래서 행해지는 남녀의 성행위가 공감주술의 일부로 인정된 점, 나아가 말과 누에의 생태학적인 이미지가 결합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논의를 정리하면 오늘날 마냥혼인담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수신기』의 <말의 사랑>은 에도 시대에 하야시 라잔이 편찬한 『괴담전서』에 <마두냥(馬頭娘)>으로 수록되어 민중에게 회자되면서 전파된 것으로 추론된다.²¹⁾ 이와 함께 일본의 양잠가에서 잠실에서의 성행위가 유감주술(類感呪術)로서 행해졌던 관습과 농가에서 다산·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감염행위(感染行為)를 하여 농경신이나 정령들을 매혹시키는 풍습인 다야소비(田遊び等) 등도 마냥혼인담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하면 마냥혼인담의 형성과 확산은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신앙이나 민속에 오시라사마와 같은 새로운 요소가 부가되어 양잠 민속을 활성화하는 연속성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본 마냥혼인담의 특징

일본 마냥혼인담의 양상은 말과 아가씨가 혼인관계를 맺는 이류혼인의 성립과 혼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미성립 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마냥혼인이 성립하는 이야기는 오시라사마 제문에 등장하는 [사례 1]과 구전설화에 등장하는 [사례 2], [사례 4], [사례 5]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말과 아가씨의 친연성이 혼인이라는 극적인 관계로 묘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말과 아가씨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는 구전설화에서 [사례 3], [사례 6]을 제시하였으며, 마냥혼인담의 원형으로 일컬어지는 <말의 사랑>을 나타낸 [사례 7]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마냥혼인담의 유형은 그 명칭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반드시 말과 아가씨의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20) 전호태 지음(2009), 『화상석 속의 신화와 역사』, 소와당, pp.256-262.

21) 今野門輔 著(1966), 앞의 책, pp.145-154.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말과 아가씨의 생전에 이류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그 둘이 승천한 후에 하늘에서 하계로 누에를 떨어뜨리거나, 말가족에 아가씨가 한 몸으로 뿔싸인 채 누에가 되어 지상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말과 아가씨의 합체 및 한 쌍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례 3]과 [사례 6]의 결론 부분에서 공주와 말이 누에가 되어 양잠의 신으로 모셔지며, 양잠신인 여신의 모습이 반드시 말을 타거나 여신 옆에 말이 있다는 것은 양잠신인 여신과 말이 한 쌍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예이다.

또한 마냥혼인담의 유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구조는 마냥혼인의 성립 여부와 필연적인 관계는 찾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마냥혼인담의 공통적인 서사전개는 말의 죽음→말가족과 아가씨의 승천→누에를 하계로 떨어뜨림, 또는 하계로 떨어진 말가족 안에 누에가 있음 등으로 정리된다. 요컨대 이류혼인의 성립과 관계없이 말가족이 아가씨를 데리고 승천한 후에 지상에 누에가 생기게 되었다는 누에의 탄생과 이로 인한 양잠의 시작, 나아가 양잠신으로 모셔지는 여신과 말의 유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냥혼인담과 마냥혼인담의 모티브로 알려진 [사례 7]인 『수신기』의 <말의 사랑>과의 비교를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먼저 마냥혼인담의 가장 큰 특징은 아가씨가 말과 혼인관계를 맺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며,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라도 말을 축생이라고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말의 사랑>에 등장하는 아가씨의 태도는 말리고 있는 말가족을 장난으로 발로 툭툭 차면서 축생인 주제에 자신을 아내로 맞으려고 한 것을 매우 비난한다. 특히 이러한 태도에는 인간과 이류인 말을 대상으로 하는 이류혼인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본의 마냥혼인담은 수신기의 <말의 사랑>을 모티브로 성립되었지만, 이류혼인의 성립에 대한 민중의 시선은 일본에서 훨씬 더 관대하게 변용되어 발전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에 주목하자면, [사례 7]의 <말의 사랑>에서 결론은 누에의 기원과 뽕나무를 상잠이라고 하는 유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마냥혼인담에는 누에의 기원을 비롯하여, 양잠신의 탄생과 양잠신의 명칭을 오시라사마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단계까지 발전한다. 그리고 오시라사마는 다른 아닌 아가씨와 말을 의미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마냥혼인담은 누에의 기원을 시작으로 아가씨와 말이 화신하여 이를 수호하고 변성시키는 오시라사마의 탄생까지 확대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더불어 이야기의 첫

머리에서 마냥혼인이 성립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다수의 사례를 차지하는 것은 이류혼인에 대한 일본인의 우호적인 시각을 표상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마냥혼인담은 신화 레벨에서는 본래신(本來神)과 인간의 혼인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마냥혼인담의 신화적 요소는 말과 아가씨가 승천하는 것과 승천한 후에 누에의 기원을 초래한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잠신인 오시라사마의 탄생을 나타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민담 레벨에서 구전될 때 이류(異類)와의 혼인은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이거나 ‘기피되는 혼인’으로 부정된다. 하지만 이류혼인의 결과로 탄생한 자식이 보통의 인간이 아닌 신비한 힘을 가진 자로 묘사되는 것이 대부분이듯, 마냥혼인에 의한 결과 또한 결코 평범하지 않아서 인간 세상에 풍요와 번영을 초래하는 누에의 기원과 오시라사마 신앙을 탄생시켰다.

[사례 7]의 <말의 사랑>도 인간과 이류의 혼인을 환영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과 아가씨가 한 몸이 되어 새로운 누에가 탄생한 것은 민담 레벨이라기보다는 신화적 수준의 이야기이며, 이점은 마냥혼인담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화적 모티브이다. 논의를 정리하면 일본의 마냥혼인담은 『수신기』의 <말의 사랑>을 모티브로 하며 말과 아가씨의 승천 후에 누에의 유래를 말하는 신화적인 요소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말의 사랑>에는 아가씨가 말을 축생이라고 노골적으로 질책하며 사목(社木)인 뽕나무에 비중을 두어 누에의 기원과 상잠(桑蠶)이라고 하는 까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마냥혼인담의 특징은 다수의 사례에서 말과 아가씨의 이류혼인의 성립이 전제되며 말과 아가씨의 사후에 파생되는 결과인 새로운 누에의 기원, 오시라사마의 탄생, 양잠신인 여신과 말의 관계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본에서 마냥혼인담이 맹인 무녀들인 이타코가 영창하는 제문에 의해 그 명맥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며,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일본 고유의 민간 신앙이자 민속 문화라는 사실이다. 마냥혼인담과 같은 이류혼인담은 오늘날에도 일본인들에게 현대소설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소재로서 기층문화에 작동하고 있다. 차후의 연구과제로서 일본 이류혼인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일본문화에 반영된 이류혼인담의 분석 및 동아시아 이류혼인담의 비교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魯成煥 訳註(1999), 『古事記』, 예진, pp.76-77.
- 송영숙(2011), 『일본 민담 속의 십이지 동물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81-87.
- 야나기타 구니오 저, 김용의 역(2009), 『도노 모노가타리』, 전남대학교출판부, pp.116-117.
- 전호태 지음(2009), 『화상석 속의 신화와 역사』, 소와당, pp.256-262.
- 지은이 干宝, 옮긴이 도경일(1999), 『수신기(고대중국민담의 재발견 2)』, (주)도서출판 세계사, pp.184-187.
- 石井正己(2017), 「日本文学における人鬼交驛—異類婚姻譚の系譜を中心として—」, 韓国研究財団一般共同研究事業 第2次年度 第5・6次コロキウム, pp.62-66.
- 稲田浩二 他編(1977), 『日本昔話事典』, 弘文堂, pp.80-81.
- 倉田隆延(1993), 「オシラ様伝説(馬娘婚姻譚)」, 『日本「神話・伝説」総覧』 吉成勇編、新人物往來社<歴史読本特別増刊 事典シリーズ>, pp.314-315.
- 小野忠孝 外 1人(1974), 『日本の民話 8』, 上州・甲斐 篇, 未来社, pp.496-499.
- 今野円輔 著(1966), 『馬娘婚姻譚 -いわゆる「オシラサマ」信仰について-』, 岩崎書店, pp.1-7.
- 関敬吾(1987), 『日本昔話大成 12』, 角川書店, pp.141-147.
- _____ (1987), 『日本昔話大成 2』, 角川書店, pp.141-143, p.145, p.146.
- 高橋在久外 1人(1974), 『日本の民話 6』, 房総・神奈川 篇, 未来社, pp.335-337.
- 樋口 淳, 陶 雪迎(2001), 「馬娘婚姻譚の日中比較」, 専修大学人文科学研究月報/専修大学人文科学研究所, pp.1-4.
- 福田アジオ 他編(1999), 『日本民俗大辞典』, 吉川弘文館, pp.823-825.
- 柳田国男(1910), 『遠野物語』, 聚精堂, p.14.
- _____ (1935), 「遠野物語拾遺」, 『遠野物語』, 郷土研究社, 増補版, pp.179-188.
- _____ (1995), 『遠野物語』, 河出書房新社, pp.42-43.

논문 투고 일자 : 2018. 04. 15. 논문 심사 일자 : 2018. 04. 30. 게재 확정 일자 : 2018. 05. 09.
--

 < 要 旨 >

日本の馬娘婚姻譚の様相および特徴

宋英淑

馬娘婚姻譚の様相としては、馬と娘が婚姻関係を結ぶ異類婚姻の成立と婚姻関係を結んでいない未成立段階に大別できる。したがって、馬娘婚姻譚の類型は、必ずしも馬と娘の婚姻関係を前提とする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る。馬娘婚姻譚の叙事構造の共通点は、異類婚姻の成立と関係なく、馬の革が娘を連れて昇天した後に地上に蚕ができるようになる蚕の誕生と、これによる養蚕の開始、ひいては養蚕の神として祀られているオシラ様と馬の由来についての内容である。馬娘婚姻譚の最も大きな特徴は、娘と馬が婚姻関係を結ぶ内容が多数を占め、婚姻関係が成立しなくても、お嬢さんが馬を畜生と非難したり、叱責する事例はほとんど見られないことである。それに比べて"馬の愛"に登場するお嬢さんの態度は、馬の生皮を足で蹴りながら畜生のくせに自分を嫁に迎えることを非常に非難した。ここには、お嬢さんと異類である馬との婚姻関係を結ぶ異類婚姻に対する見解の違いが、対照的に現れている。言い換えれば、日本の馬娘婚姻譚は中国の"馬の愛"をモチーフに成立していたが、異類婚姻を見つめる民衆の視線は日本ではるかに寛大に寛容し、発展したという特徴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えよう。

A Study on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Marriage Tales about the Horse and Girl

Song, Young-Sook

Japanese marriage tales about the horse and girl can be classified roughly into two stages: the first is the establishment stage of a heterogeneous marriage between different species such as a marriage between a horse and human; the second is the non-establishment stage, where they cannot have a marital relationship. This study discovered that marriage tales about the horse and girl are not always premised on their marital relationship. Instead, regardless of whether a heterogeneous marriage occurs, the common narrative structure of marriage tales about the horse and girl is based on the story of the birth of silkworm on the ground after the horsehide like horse-skin takes the girl and ascends to heaven. This ascendance represents the beginning of sericulture and the origin of the horse-attended goddess of sericulture. The girl and horse having a marital relationship forms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 of marriage tales about the horse and girl. Although the marital relationship is not established, the examples where the girl criticized or reprimanded the horse as animal were almost non-existent. In comparison, the attitude of the girl who appears in *Love of the Horse* is criticized the girl is taken in marriage but fights back by kicking the horse. This shows the difference of viewpoint on the heterogeneous marriage that constitutes a marital relationship between the girl and horse as different species enveloped by further generously transforming in Japan.